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신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을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악신도 되고 선신도 돼

물질·정신계 양면 같이 해야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전번 호에 이어서)

▲질문자: 생활 자체를 공부 재료로 삼으라는 말씀, 일체를 주인공에 일임하라는 말씀으로 진리가 일상 생활 속에 있음을 알려주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떠한 경계든지 사랑으로 깨달리지 말고 한 곳에서 들고 남을 관(觀)하고 굳은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 한데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형제 및 보살님들의 도움을 통하여 유(有)와 무(無)가 돌아다니고 한마음 주인공이 나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침을 바랍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면허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속세의 질서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유의 형상을 통해서 스님의 도움과 여러 보살님, 법형제 형님한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잘못이 있음을 통해서도 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길래 저를 통하여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잘못의 크기는 큼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나를 일깨워주는 그 가르침은 오직 한마음 주인공만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은, 아직 겨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님: 그것이 옮겨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법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주인공에 맡겨놓으면 통신이 돼가지고 다 응신(應身)으로서 화해서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응신으로 화해서 그냥 그 자체가 바로 나뉘어 버려버려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약사가 돼서 나뉘어주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법신(法身)으로 나뉘어줍니다. 그러나 해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양면이 같이 하는 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빨리 해결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어떠한 거든지 다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정신세계를 무시해도 안 되고 물질세계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질문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여 옛날에는 만주지방을 다스리던 용맹스럽고 슬기로운 민족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아 나가기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배달민족은 어떻게 해야 통일된 민족으로 세계 속에 발전된 국가가 될 수 있겠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허허허. 정신세계의 모든 마음들이 서로 서로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는 걸 안다면, 돌이 아닌 도리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배달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배달민족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그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동일하게 같이 공용하고 살아나가는 공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로 우리는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겸해서 중용을 할 수 있으니 평화롭게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질문자: 저희 중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느껴져 여쭙고 싶습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있고 그 집의 주인인 마음이 있고 한데 마음 외에, 또 영혼이 있고 혼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靈)과 혼(魂)과 백(魄)의 뜻이 다르다고들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질문이 혼돈이 됐지만 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靈)이라는 거하고 혼백(魂魄)이라는 거하고 돌이 아

닙니다. 혼백이라는 건 옛날 분들이 혼백이라고 했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영혼(靈魂)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혼백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돌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혼 자체가 바로 육신과 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라 하면 바로 육신과 영혼이 있는 데다가 그 불씨 에너지 원소 자체는 바로... 즉 말하자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줍니다.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마음 속에서 나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이라고도 하고, 악신이라고도 하고 선신이라고도 하죠.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선신이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바로 악신으로서 자기 가 삶을 악하게 살면 그 영혼도 아주 악의적인 영혼이 되구요, 선의적으로 지혜롭게 해나가고 대치를 해나가고 마음을 넓게 잘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악신이 아니라 선신으로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한 군데서, 그 마음 한 군데다 하는 건 바로 한 군데서 영혼이 악신이 나오고 선신이 나옵니다. 영혼 자체가 자기 근본이 아닙니다. 영혼은 악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나오는 선신이 영혼이요, 또 악신이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혼백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재를 곱게 쳐서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발자국이 남다거나, 인도환생을 하면 발자국이 남다거나 독사가 됐으면 독사 시늉이 나온다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행을 한 혼백이라든, 즉 말하자면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한 그런 모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할 건 없지만 인생으로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같이 항상 공부하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씨가 아니고, 마음을 내주는 반면에 마음 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업식' 이라고도, 사람이 죽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만, 자기의 불씨는 항상 밝아서 여여한데 그 업식 영혼이 그냥 이라고저라고 해가지고는 열기설기 얽혀서 업식이 돼가지고 현실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질문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지수 화풍으로 흩어지고 마음은 신으로 연결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스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신도 되고 선신도 된다는 얘지요. 그러니까 악신으로서 너무 했다 하면 진짜 악신의 활동을 할 거고, 선신으로 행했다면 선신의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악신이고 선신이고 몽땅, 악신이 나오면 악신인 대로 놓고 선신이 나오면 그대로 감사하게 놓으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악신으로서 악행을 하게끔 마음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업식이 몸 속에 들어있으니까 악의 행이 나올 때는 '이것이 재요!' 하고 놓고, 또 잡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맡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마음먹는 대로, 지금 현실에 마음을 먹었으면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해서 백종(百種)이 있고, 칠색(七色)을 해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악행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간에 모든 문초를 그냥 해결해버리고 불씨를, 여러 분이 땅을 갈고 돌을 주워내 버리고 골라



그림 · 최주현

놓는다면 스님들은 씨를 거기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백종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님들의 천후문을 써서 올리는 건 정성껏 밭을 갈고 자갈들을 집어내 버리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밭에다가 불씨를 심어주는 겁니다. 싸이 나게. 그러면 그때는 인도환생을 해서 새 싸이 나죠. 새 싸이 나는 것이 인도환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도환생하는 것도 자손들이 얼마나 정성껏 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집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느냐는 겁니다. 깡통의 차원이라든 깡통끼리 태어나고 선신이라든 선신끼리 태어나니까요.

그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배우고 지혜롭게 능가할 수 있고 업

님이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웃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제석천왕은 무슨 뜻으로 땅에 풀 한 포기 꽃을 꽂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석천왕의 범거량이 범지불의 경지인지 어떤 경지인지, 또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부처님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 한 것도 그 자리에서 한 것이고, 범천왕이 풀 한 포기 꽂은 것도 그 자리요, 사찰을 지은 것도 그 자리요. 웃은 것도 그 자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꽃 한 송이, 나무 풀 한 포기 꽃을 꽂는, 제석천왕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겠는데 선생님 몸 안에 선생님이 많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제석천왕이 아닙니까? 혼자 사찰을 짓는 게

마음은 체가 없어 근본에 맡겨놓으면 통신이 되고 응신으로 화해서 나뉘

을 면제할 수도 있고, 생각을 지극하게 해서 자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달함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 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살아서만이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질문자: '세존유산법할'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거느리시고 먼 산을 지나가시다가 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좋은 명당이니 이곳에 큰 법찰을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니 제석천왕이 앞에 나타나서 풀 한 포기 땅에 꽂고 '법찰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니 부처

아니죠? 사과 하나를 먹어도 혼자 먹지 않죠? 여러 생명이 먹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제물의 마음, 일체 중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거를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천왕(天王)이거든요.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딱 꽂았느니라 하는 건 생각을 딱 거기다가 집중했다 이거죠.

한마음으로 집중을 한 거죠. 한마음으로 집중을 하니까 사찰이 그대로 지어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빙긋이 웃었다. 웃은 것이 바로 그놈이요, 그놈이 한 거니까 그냥 웃는 게 대답이요. 뭐. 그러니까 혼자 웃은 게 아니죠. 또 그것도.

여러분! 말이 낫으니 말이 지 지금 끄떡 끄떡하는 것도 혼자 끄떡거리십니까? 혼자 하는 게 하느님 없습니까.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입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일하는 것도 없고, 혼자 사랑하는 것도 없고 전부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나뉘기 때문에 아버지로도 나뉘고, 남편으로도 나뉘고, 형으로도 나뉘고, 아들로도 나뉘고, 사위로도 나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면서 한 몸을 가지고 여러 모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한 몸이 얼마나 많았죠. 천차만별의 일을 다 손으로 하죠.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내 손이 됐다 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지금 있는 나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을 내려오면서 인간으로 화해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네 속을 들여다보라 이겁니다. 중명서가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리를 넓히면서 알고 해야 어디 가든지 서슴없이 딱 짜게서 맛을 보고 먹고, '어 참 맛 좋고 시원하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고도 그 씨는 되 남아서 이듬해 또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원토록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가 광대하고 묘하고 영원 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하고 정신세계의 마음을 못 배우고 영혼이 죽어서 말입니다. 죽어서 자기가 몸이 있는 줄 알아요. 웃을 벗어도 벗은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물에 가면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못 가고, 불에 가면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귀신이 많고 짐승들이 많은 데는 잠깐 먹을까 봐 못 가고 넘어서질 못해서,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도리를 알고 보면 언덕 넘어갈 것도 없고 언덕 넘어갈 것도 없단 얘지요. 그 도리를 알면 산 부처요, 산 법신이구요.

▲질문자: 저는 몸이 아플 때 우선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아픈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같이 말기기에 전에 약을 찾는 사람에게 주인공에 맡기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웃음이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원사에 있을 때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하루 몇 백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산으로 개미들이 행렬하듯이 그냥 주욱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톨골 안에서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습니까. 문 앞에서 말만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약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슨 말도 안 합니다. 믿고 싶을 거만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몸을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럴 때요. 그러면 그대로 모두 작용을 해서 자기가 형성시킨 기계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겠죠. 허허! 그 작업장 기계를 만들어놓기도 하지만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 인부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해서 빨리 고쳐 내놓지마는, 약을 먹는다 뭘 한다 하면 통신이 되지는 않는 거죠. 통신이 되지는 않으니깐 감감하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도 가야하고 남을 믿고 가야죠, 뭐. 그런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고. 만약에 이 도리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벌써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는 먹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게끔 돼웁니다. 이 공부를 한 사람

에 한해서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실해서 약을 먹어도 밥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그냥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고, 이 소립니다. 입을 해도 하는 사이 없이 일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도 소 한 마리 잡아먹은 사이가 없이 잡아먹고, 이걸 줄 알아야 소 무명을 거들 줄 알고 소를 환토를 시켜서 인간으로 화해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약 먹는 것도 약만 찾는다고, 그러니까 물질로다가 치우쳐 올라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형성시킨 거는 안에서 형성시켰고 지금 작용을 하고 나가는 건 안에서 작용을 하고 나가는데, 나를 움직여가게 하는데 한쪽만 굳어져도 육신이 쓰러지고 송장이 되는데 탄 데로 자꾸 마음을 뒤보세요. 어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해놓고 약을 먹고 이래도 못 믿으니깐 통신이 되질 않는 때가 많은데,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약이 영양소가 되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 밥도 약이 아닙니까? 밥은 왜 약이라고 안 먹습니까? 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 그냥 그저 밥이려니 하고 먹으면서 약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중요한 약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사니까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물도 약이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바로 약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약이 아니고 어떤 것만 약입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바로 그것도 약 아닌 약이요. 그게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약을 먹으면 안 낫겠지, 약을 먹으면 뭐 더하겠지, 무슨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되지, 되지.' 이러면서 그냥 논란이 벌어지고... 이걸 약을 먹으니 안 먹으니 팔레야 될 수 없는 주인공 자기 뿌리예요. 그리고 잘되든지 못되든지, 안 된다 된다는 떠나서 팔레야 될 수 없는 뿌리라는 겁니다. 자기 영원한 뿌리, 불씨 말입니다. 나는 주인공을 찾아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을 벌써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예요. 자기가 이렇게 형성된 자체가 바로, 소가 있느냐가 답구지가 있듯이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달구지도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니까? 소가 있기 때문에 달구지를 만든 것이고 달구지를 만들었으니까 마부가 소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문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질문자: 일찍이 한암선사께서는 '탐진치 삼독만 멀리하면 성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달마조사께서도 '진성(眞性)은 조금도 어두운 바 없이 항상 밝고 자재하건만 중생이 스스로 생사고(生死苦)를 짓고 자기가 받는다. 마음 가운데 망념만 여의면 본래가 부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암선사이나 달마조사와 같이 될 수가 있는지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스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세(三世)·삼심(三心)이 지금 과거·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죽는 순간, 나올 수 있는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미래가 오늘이요. 그러니까 과거·현재·미래, 아니 과거·미래·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그 삼심이, 삼독으로써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